

2025년 안산 여성단체 연합 대중아카데미

# 여성의 광장 정치, 차이와 돌봄의 민주주의

---

엄혜진(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 다시, 광장으로 나온 민주주의

---



# 민주주의의 개념

---

democracy = demos(인민) + kratos(지배)

- 인민에 의한 지배
  - 인민이란 누구/무엇인가?
  - 지배(kratos)란 무엇인가? ≠ arche(monarchy 군주정, oligarchy 과두정)
- 
- 개념은 인간 지적 활동의 산물이자 역사적 의미체로서, 그 속에는 과거의 경험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집합적 기대가 응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논쟁적인 속성을 내포한 문화적 구성물(Koselleck, 1985)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

## Citizenship

- 가구를 소유하여 자기 충족을 달성한 존재
  - 공민적 의무에 충실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격체
  - 경제적인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 
- 공화주의 시민권의 원형
  - 시민(polis)의 영역과 가족(oikos)의 영역 분리
  - 위계적 인간학에 기초 : '자유'는 신분, '평등'은 신분에 따른 특권

# 근대 민주주의

---

## Citizenship

-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며’, ‘모든 정치적 연합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시효 없는 권리, 즉 자유, 소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의 보존’임을 명시하여 모든 개인의 시민적 지위를 보편화.
- 자유주의에 기반해 재산의 소유를 자유의 조건이자 시민의 정의와 결부된 핵심적 자질로 옹호하며 무산자 대중을 배제.
- 여성의 고유 영역은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권을 배제.

# 올랭프 드 구주

---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기본적 의견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 받아선 안 된다.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 의사 표현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흐리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한다.”

올랭프 드 구주(Olympe de Gouges, 1748–1793),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1791)

참고 | “제10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1789)

# 안티고네

---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와 그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키타 사이의 딸이다. 그녀는 스스로 눈을 찔러 앞을 못 보는 오이디푸스가 거지행색으로 떠돌 때 언니 이스메네와 함께 길 안내를 하였다. 오이디푸스가 죽자 이스메네와 함께 테베로 돌아온 안티고네는 왕위를 놓고 싸우는 두 오빠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를 화해시키려 한다. 그러나 폴리네이케스가 에테오클레스를 공격하여 결국 둘 다 죽게 되었다. 그녀의 외삼촌 크레온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만 성대히 장례를 치러주고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를 묻어주려 하다가 크레온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 그녀는 크레온이 처형하기 전에 목을 매 죽고 그녀를 사랑한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도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죽었다. 이 사실을 안 크레온의 아내 에우리디케도 자신의 침대에서 자살하였다.

# 안티고네

---



- 안티고네는 배제되었으나 배제되지 못하는 공동체의 영원한 아이러니
- 남성과 다른 여성 주체성의 가능성과 곤란을 동시에 보여주는 존재

뤼스 이리가레(L. Irigaray),  
『반사경 – 타자인 여성에 대하여 *Speculum de l'autre femme*』(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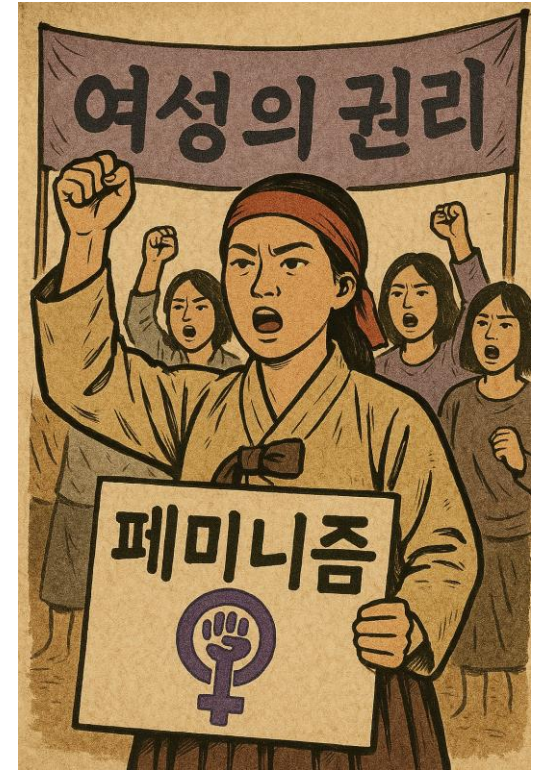
- 안티고네는 근친상간적 존재이자 혼종적 주체
- 친족 규범과 젠더 규범의 불안정성과 일그러짐을 대표

주디스 버틀러(J. Butler),  
『안티고네의 주장 *Antigone's Claim: Kinship Between Life and Death*』(2000)

# 페미니즘의 도전과 질문들

- 페미니즘은 근대 정신을 기반으로 태동하여 근대 기획의 모순을 **여성(젠더)**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상을 재구성하여 성평등과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 운동, 이론
- 페미니즘은 **인간과 시민 주체, 성차와 권리의 구성, 정치의 지평** 등을 주요 쟁점으로 민주주의의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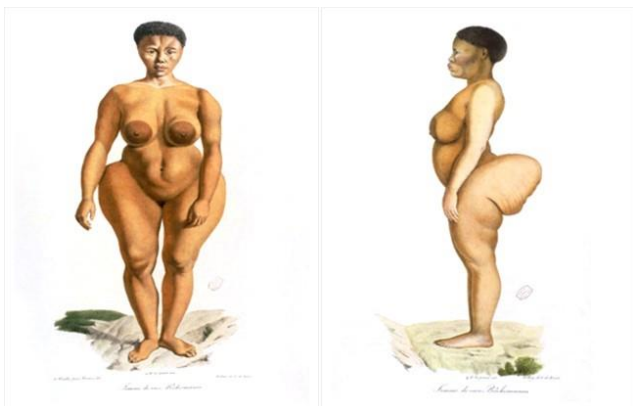
챗gpt가 생성한 '한국 페미니즘'의 이미지



# 인간과 시민 주체: 여성은 어떻게 배제될 수 있었는가?

---

## 타자화와 성적 대상화



- 여성에 대한 배제적 포함
- 타자화(othering):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차이를 배제의 근거로 활용해 주체('나'/'우리')와 구별하고, 배척하는 존재를 생산
- 성적 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 인간의 다면적, 총체적 인격을 기각하고, 오로지 성적 기능을 지닌 존재이자 성적 수단의 지위로 환원  
≡ 성적 사물화 ≡ 성적 객체화

## 보충자료

## 타자화는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EBS 지식채널e, 〈이상한 쇼 Freak Show〉

## 보충자료

## 성적 대상화는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인사 잘하지, 보고 잘하지, 야근 잘하지, 기획 잘하지  
근데 왜 자꾸 영어점수를 따지는 거야?

영어가 인생을 가로막을 때.

영어를 위해 '인사'가 아닌 '인사'를 위한 '인사', '보고', '야근', '기획', '공부', '공부' 등 사회적  
규범을 위해 '인사', '보고', '야근', '기획' 등 사회적 규범을 위해 '인사', '보고', '야근', '기획' 등 사회적  
규범을 위해 '인사', '보고', '야근', '기획' 등 사회적 규범을 위해 '인사', '보고', '야근', '기획' 등 사회적

+ 크게보기



얼굴 예쁘지, 학점 좋지, 성격 좋지, 매너 좋지  
근데 왜 자꾸 영어점수를 따지는 거야?

영어가 인생을 가로막을 때.

영어를 위해 '인사'가 아닌 '인사'를 위한 '인사', '보고', '야근', '기획', '공부', '공부' 등 사회적  
규범을 위해 '인사', '보고', '야근', '기획' 등 사회적 규범을 위해 '인사', '보고', '야근', '기획' 등 사회적  
규범을 위해 '인사', '보고', '야근', '기획' 등 사회적 규범을 위해 '인사', '보고', '야근', '기획' 등 사회적

징병제도는 표준적이고 규범적인 시민 주체에 대한 특정한 가정을 전제로 제도화되어, 한국 사회 젠더 관계의 정치사회적 구성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시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수호하는 ‘병사 시민’이나 부의 창출에 기여하는 ‘노동자 시민’으로 형상화되어 왔다(정인경, 2012: 3). 반면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과의 비교 속에서 결핍된 존재로 규정되고 배제되거나 부정되면서 근대적 군인 주체를 구성하는 외부로 작용했다(김엘리, 2018: 150). 남성중심적 시민 모형을 통해 여성의 성적 차이는 시민적, 정치적 역량의 열등성 지표로 간주된 것이다(정인경, 2012). 여성의 이러한 불완전한 시민권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연결돼 왔고, 여성의 신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환원하는 광범한 문화적 실천을 낳았다.

엄혜진(2021),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 성차와 권리의 구성: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주장되어야 하는가?

---

## 울스턴크래프트의 역설 ≡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



- 『여권의 옹호』(1792)
- 올랭프 드 구주와 더불어 ‘근대 페미니즘의 어머니’
- “여성도 남성처럼 평등한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가부장제 하에 놓인 시민권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성의 능력, 특성을 새롭게 강조하는 또 다른 대안적 시민권의 개념을 만들어낼 것인가”

캐롤 페이트만(C. Pateman)  
『여자들의 무질서 *The Disorder of Women*』(1989)

- “남성과 여성은 이성의 담지자로서 평등하다”

계몽주의자였던 울스턴크래프트는 남성과 여성의 덕성이 본성상 다르다는 루소의 관념을 반박하면서, 여성도 남성처럼 이성적이기 때문에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 여성이 쉽게 정념에 빠지고 어리석고 사치스럽다는 등의 비판은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여성이 무지한 상태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덕성의 진보와 지식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봄.

- “잘 교육 받은 여성이 좋은 어머니, 좋은 시민이 된다”

그녀에게 ‘이상적인 여성’은 공적 책임과 가정적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여성이며, 어머니로서의 운명을 타고난 여성의 역할은 시민권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 즉 그녀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에 전념하고 있는 여성들을 좀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옹호했으며, 여성의 평등한 시민권은 모성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

**참고** | “여자는 한 순간도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되고, 자신이 타고난 교활함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며, 남자들이 쉬고 싶을 때 더 매력적인 욕망의 대상이자 더 귀여운 동반자가 되고자 스스로 요염한 노예로 변해야 한다.” 장자끄 루소(Jean-Jacques Rousseau), 『에밀 *Émile, ou De l'éducation* (1762)

## 보충자료

### 매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권의 옹호」



겨울철만 되면 응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에게도 권리를 부여한다면, 임신과 일시적인 생리로 고통 받는 개인들이 그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콩도르세, 『1789년 협회보 Journal de la Soeiété』, 5호

# 정치의 지평: 정치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

##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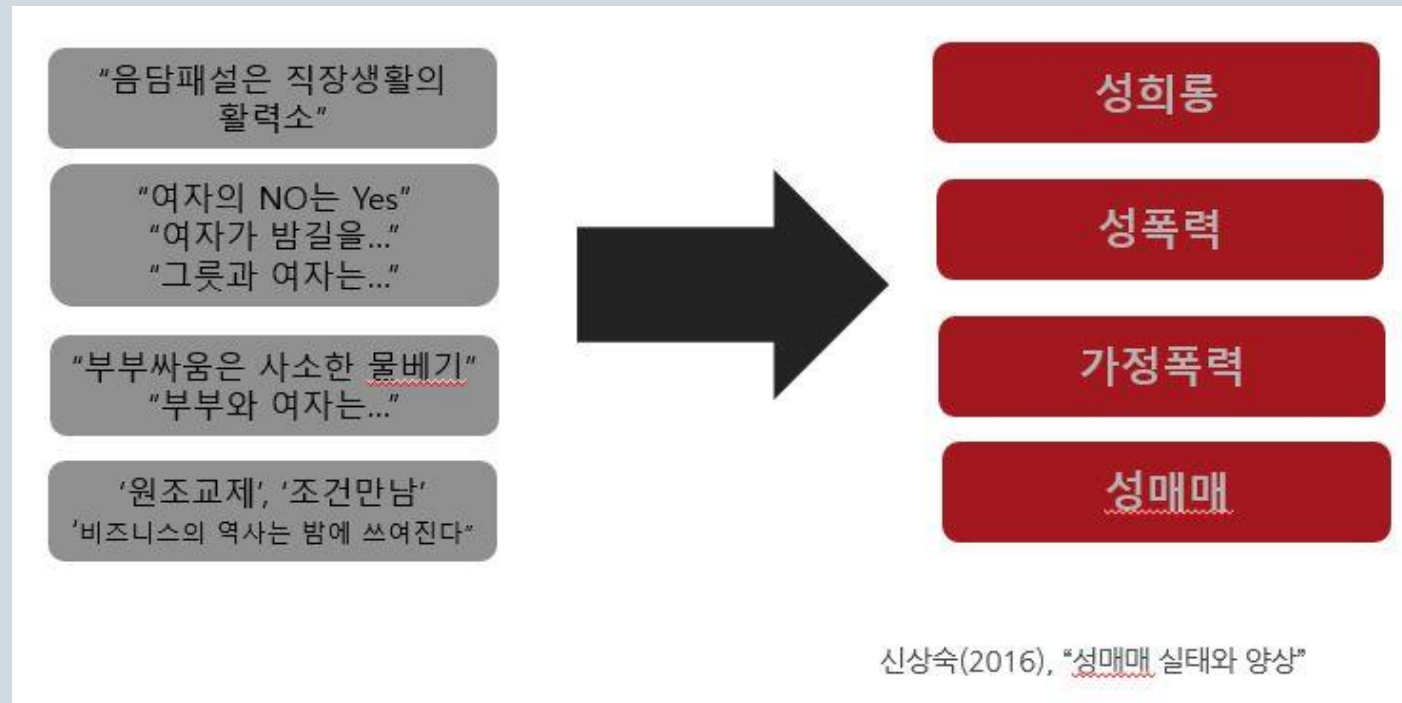


1960년대 말 의식고양(CR) 모임

-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전통 모두 공/사 분리에 기초,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공적인 영역에 제한
- 제2물결 페미니즘 이래 공/사 분리 및 경계에 도전하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상호성과 유동성 주장
- “어디선가 읽은 책,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질문하고 대답해야 한다.”(GWL, 1970)

## 토론자료

## 리즈 켈리(L. Kelly)의 성폭력 연속선(continuum of sexual violence)



#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 관계

---

## 페미니즘과 안티 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적 융합

- 국내외적으로 경고되고, 현실화돼 왔던 민주주의의 위기와 장기 지속의 징후로서 (극우)포퓰리즘. 안티 페미니즘은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적대에 따른 우발적, 부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젠더와 페미니즘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적극적인 대응 기획과 긴밀
- 신자유주의는 노동과 자본 간의 협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가족이 이 협약을 중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형성(Bezanson and Luxton, 2006). 시장의 목적에 따라 페미니즘과 성평등을 융합하는 한편, 전통적 도덕과 사회 질서의 부활,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기반한 이성애주의적 가족 가치를 표방하는 신보수주의의 안티 페미니즘과도 유기적으로 공생(Hall, 1983; Lin & Wang, 2023).
- 팔루디의 『백래시 *Backlash*』(2017)는 이를 대중문화 분석으로 광경화한 논의. “페미니즘이 전통적 성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도덕적이며 ‘자연적인’ 가정 질서를 훼손하고, 여성의 억압을 주장함으로써 자유를 위협하고 정치 질서를 무력화했다”(팔루디, 2017)

#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 관계

---

## ■ 젠더 질서의 재배열

-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의 잠식과 근대적 젠더보상체계의 해체(배은경, 2009), 생산/사회적 재생산 모순의 첨예화와 돌봄 착취 및 수탈(프레이저, 2022)
- 생애 기획의 다변화, 여성의 이중 부담 비가시화(‘개인의 선택과 책임’)
- 성역할 규범(gender role)과 섹슈얼리티(재생산/성적 관계) 관계를 둘러싼 경험의 격차와 교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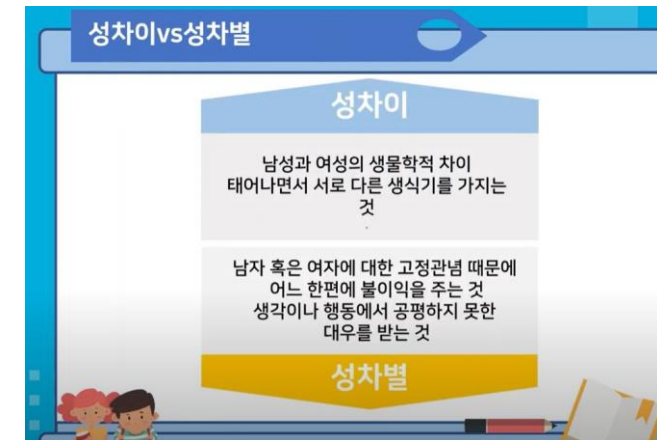
## ■ 젠더 주류화의 성과와 한계

- 성평등 기구 및 정책의 제도화와 보편화
- 정책의 편파성을 제어하는 ‘양성평등’의 관점(마경희, 2007), 시장원리와 생산성 논리에 기반
- 성평등정책 효능감의 젠더화/계층화

#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 관계

## 성차의 재배치

- 근대적 성별 규범이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기반해 성차를 배치했다면, 신자유주의는 성차를 경쟁 자원 등 경제주의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기획. 성차와 그 경험은 젠더화된 특성이 아니라 위험 혹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개개인의 기질이자 속성으로 이해되고 개인의 능동적 자리 관리 대상으로 간주(엄혜진, 2016).
- 성차 본질주의와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 해체의 공존
- 섹슈얼리티의 자산가치화와 신자유주의적 모성('맘충')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성4차시 여자답게 남자답게가 아닌 나답게>

#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 관계

---

## 젠더화된 권리의 재배치

- 극단적 경쟁 원리 중심의 분배 패러다임의 강화로, 성차를 동등한 권리의 자질이 아니라, 특수한 결핍으로 간주해온 제도적, 문화적 실천을 정의(justice) 판단의 외부에 배치하고 이를 가시화하는 것 자체를 공정성 위반으로 간주(엄혜진, 2021).
- 오늘날 안티페미니즘은 성평등에 대한 전면적 거부가 아니라, 성차별을 개인화하여 신자유주의적 분배 패러다임에 조응시켜 온 과정.
-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윤석열 폐북

#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 관계

---



이은의 책

 삼성을 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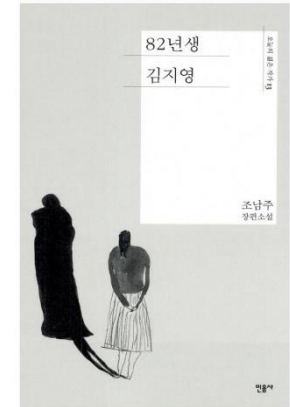
12년 9개월



#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 관계

- 경쟁의 고도화로 돌봄 및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초래하는 한편, 성차에 대한 경제주의적 재정의 과정을 통해 이를 여성에게 재할당하고 정당화
- 2010년대 중반 부상한 페미니즘 운동과 대중화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의 신화와 실패를 폭로하는 과정인 동시에, 자유주의적 권리 담론, 급진주의의 피해자중심주의(‘안전’) 담론, 문화주의의 소수자성/다양성 담론 등을 혼합해 신자유주의와 불화하지 않는 정치로 구획.

“『82년생 김지영』은 일과 가족을 모두 가지라는 성공 담론 중심의 여성 자기 계발 담론의 임계를 나타내며 갱신된 실패와 위로의 자기계발 담론으로, '82년생 김지영'을 페미니즘의 기호로 만들어낸 여성들은 자기계발을 일상적인 삶의 실천으로 삼은 사회속에서 성장하였으며, 또한 그 삶의 불만과 불안을 새로운 페미니즘 행동주의와 정치를 통해 실천한 여성들이기도 했다(엄혜진, 2021b).”



#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 관계

---

## ‘여성혐오’의 의제화

- ‘여성혐오’는 차별이나 폭력 등 기존 담론으로는 신자유주의를 통과한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양태, 그리고 고도 경쟁 사회의 부당한 피해자의 위치를 광폭한 방식으로 선점하려는 새로운 남성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한 2030 여성들에 의해 발굴된 페미니즘 자원(엄혜진, 2021b).
- ‘여성혐오’는 신자유주의적으로 재구성된 성차별구 구조(여성에 대한 타자화와 성적 대상화, 성차와 권리의 구성, 정치적 지평)의 새로운 작동 양식을 드러내고, 언어의 강도만큼 여성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정치 담론. 여성은 각자도생의 생존 불안을 남성과 다르게 경험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의 이중적 요구(개인과 여성)는 부당하다는 점을 제기.
- 성차별의 새로운 양식을 해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직면한 성적 폭력 및 공격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전략 언어로 대중화. 여성 차별의 역사적, 공통적 경험에 기반한 호소력을 발휘했지만, 여성혐오(misogyny)가 아니라 ‘혐오’(표현 등)에 대한 대응에 귀속되는 경향성.

# 여성의 광장 정치와 페미니즘의 민주주의

---

## (1) 광장과 민주주의의 재정의

- 광장 정치의 일시성과 광장(민주주의)의 지속성
- 광장은 집합적 정치운동의 장이자, 젠더화된 시민권이 행사되는 장(Massey, 1994)
- 젠더 규범과 남성 중심적 광장 규칙을 변주하고 전복해온 여성들의 정치 실천
- 돌봄과 연대, 분노와 유희의 결집, 배제된 시민권을 넘어서는 민주주의 실험
- 여성들의 몸, 말, 감정 등을 통해 성차를 민주주의의 내용이자 존재 방식으로
- 위협과 안전이라는 광장의 이중적 작동 기제를 정치화, 적극적 '안전'의 의미 생성

# 여성의 광장 정치와 페미니즘의 민주주의

---

## (2) 여성 정치 주체화의 경로

- 행위성과 신자유주의적 주체화(통치성) 사이의 이론적 진자 운동을 넘어서
- 탈정치화(소비주의적 덕질)/정치화, 정체성의 정치(TERF)/차이의 정치, 현실 자아(인실쫓)/디지털 자아의 이분법을 넘어서
- 광장의 직접민주주의, 정체성 정치의 급진화, 실천적 연합 정치
- 정치 담론장 경험과 정치 주체화의 젠더화된 차이

# 여성의 광장 정치와 페미니즘의 민주주의

---

## (3) 여성의 광장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의 결속과 이완

- 여성의 광장 정치 ≠ 페미니즘 정치 ≠ 여성 정치, 3중 정치의 상호작용과 괴리의 가속화
- 2010년대 전후, 여성의 새로운 광장 정치의 실험. 2008년 광우병 시위, 2012년 비키니-코피 시위, 2016년 박근혜 탄핵 시위 등 여성 광장 정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페미니즘 정치(‘여성혐오’의 의제화). 2016년 강남역 시위, 2017년 검은 시위, 2018년 미투운동, 메갈리아, 헤화역 시위 등

# 여성의 광장 정치와 페미니즘의 민주주의

---

## 1. (성)평등의 급진화

- 생물학적 본질주의로 귀속되지 않는 성차에 대한 유물론적 사유의 확장
- 돌봄, '권리'를 넘어 '해방'의 기획으로 재정의, 재구조화

## 2. 확장하고 동맹하는 페미니즘

- 분배와 인정의 긴장과 통합을 다루는 페미니즘 정치
- 정체성의 정치와 연대의 정치의 결합적 상승작용을 도모하는 페미니즘 정치

## 3. 민주주의와 정치를 재구성하는 여성의 정치 세력화

- 새로운 민주주의를 생성하는 사회 전환 기획으로서의 페미니즘
- 진영 정치에 포획되고 리더십에 의존해 왔던 여성의 정치 세력화 전략에 대한 성찰
- 답보 상태의 진보 대중운동, '리스크 관리' 의제로 동원되는 페미니즘 정치를 넘어서기

# 참고문헌

---

- 엄혜진(2025),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분열적 결속: 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 비판 쟁점들과 함의”, 『한국여성학』, 41권 1호.
- \_\_\_\_\_(2024), “능력주의는 어떻게 구조적 성차별과 공모하는가: ‘공정’담론부터 포스트페미니즘까지”, 한국여성학회 기획,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한겨레출판.
- \_\_\_\_\_(2024), “남자답게/여자답게, 그리고 ‘나답게’를 넘어서: 성별 고정관념의 이론적 궤적과 대중담론 분석”, 『한국여성학』, 40권 3호.
- \_\_\_\_\_(2021), “여성의 자기계발과 페미니즘의 불안한 결속: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0권 1호.
- \_\_\_\_\_(2021),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경제와 사회』, 132권.

**감사합니다.**

---